



ㄷ는 혀소리(설단음)이니 '둘(斗)'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쓴 ㄷ는 '땀(覃)'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ㅌ는 혀소리(설단음)이니 '툰(吞)'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ㄴ는 혀소리(설단음)이니 '낭(那)'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ㅁ는 입술소리(양순음)이니 '뿔(鵠)'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쓴 ㅁ는 '뽕(步)'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ㅍ는 입술소리(양순음)이니 '푼(漂)'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ㅂ는 입술소리(양순음)이니 '땡(彌)'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ㅈ는 잇소리(치음)이니 '즉(卽)'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쓴 ㅈ는 '쥬(慈)'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ㅊ는 잇소리(치음)이니 '침(侵)'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ㅅ는 잇소리(치음)이니 '술(戍)'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쓴 ㅅ는 '쌍(邪)'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ㅎ는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홉(搦)'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ㅅ는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형(虛)'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쓴 ㅎ는 '홍(洪)'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ㅇ는 목구멍소리(성문음)이니 '욕(欲)'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ㄹ는 반혓소리(탄설음)(음절 말에서는 /l/음)이니 '령(閔)'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ㅅ는 반잇소리(유성치마찰음)이니 '쌍(穰)'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ㄷ는 '툰(吞)' 자의 가운데 소리('툰' 자의 음을 발음할 때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ㅌ는 '즉(卽)'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ㄴ는 '침(侵)'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ㅁ는 '홍(洪)'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ㅏ는 '맘(覃)'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ㅑ는 '군(君)'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ㅓ는 '업(業)'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ㅕ는 '욕(欲)'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ㅗ는 '양(穰)'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ㅛ는 '술(戌)'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ㅜ는 '별(鶯)'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종성 표기에는 다시 초성 글자를 쓴다.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초성 글자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종성도 같다.   
· ㅡ ㅏ ㅑ ㅓ ㅕ ㅗ ㅛ는 첫소리 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ㅏ ㅑ ㅓ ㅕ는 첫소리 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훈민정음(한글)은 반드시 아울러 써야만 하나의 소리(음절)를 이룬다(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단위가 된다). (음절 단위로 표기된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점이 둘이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종성이 ㄱ·ㄷ·ㅂ인]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빠르다.

### 훈민정음(해례편) 訓民正音(解例篇)

#### 제자해(制字解)

천지 자연(우주)의 원리는 오직 음양오행뿐이다. 곤(坤)과 복(復)의 사이가 태극(太極)이 되고(곤괘와 복괘의 사이에서 태극이 생겨나서), (이 태극이) 움직이고 멎고 한 다음에 음(陰)과 양(陽)이 (우선) 생겨나는 것이다(그러니). 무릇



목구멍은 입안 깊은 곳에 있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 보면) 수(水)에 해당하는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공허하게 통하여 물의 맑고 두루 흐름과 같으니, 철[季節]로는 겨울이요 음(音)으로는 우(羽)이다.

어금니는 서로 어긋나고[錯] 길어서 (오행으로 보면) 목(木)에 해당하는다.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해도 여물기 때문에 나무가 물에서 나되 그 형상이 있음과 같으니, 철로는 봄이요 음으로는 각(角)이다.

혀는 날카롭게 움직여서 (오행으로 보면) 화(火)에 해당하는다. (혀에서 나는) 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불이 이글거리며[轉展] 활활 타 오름[揚揚]과 같고, 철로는 여름이요 음으로는 징(徵)이다.

이[齒]는 단단하고 다른 물건을 끊으니 (오행으로 보면) 금(金)에 해당하는다. (이에서 나는)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는 것은, 쇠의 잔 부스러기가 단련되어 (무엇이) 이루어짐과 같고, 철로는 가을이요 음으로는 상(商)이다.

입술은 모나고 다물어지니 (오행으로 보면) 토(土)에 해당하는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머금고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함축하여 넓고 큼과 같고, 철로는 늦여름이요 음으로는 궁(宮)이다.

그러나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는 작용이기 때문에 오행 가운데서도 물과 불[水火]이 큰 것이 된다.

목구멍(=水)은 소리를 내는 문이요, 혀(=火)는 소리를 구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음 가운데서도 목구멍소리와 혀소리가 주장이 된다(즉 목구멍과 혀가 조음기관의 주가 된다).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가 다음이므로 북쪽과 동쪽의 방위요, 혀와 이가 또 그 다음이므로 남쪽과 서쪽의 방위요, 입술이 끝에 있으므로 토는 일정한 방위 없이 사철에 덧붙어서 왕성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즉 초성 가운데에는 스스로 음양오행 방위의 수(數, 기본원리)가 있는 것이다.

또 성음의 청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ㄱㄷㅂㅈㅊ ㅎ은 전청(무성무기음)이 되고, ㅋㅌㅍㅊ ㅎ는 차청(무성유기음)이 되고, ㄲㅌㅍㅊㅈㅈ은 전탁(무성무기성문폐쇄음)이 되고, ㅅㄴㅇㅇㄹㅅ은 불청불탁(유성음)이 된다. ㄴㅇㅇ은 그 소리가 가장 거세지 않은 까닭으로 (훈민정음 23자음체계인 23자모표 상의 분류)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들을 시초로 하였다. ㅈ과 ㅊ은 비록 다 조음위치가 같은 전청이지만 ㅈ이 ㅊ에 비하여 소리가 거세지 않은 까닭에 (ㅈ을) 또한 (치음)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초로 하였다. 다만 연구개음의 ㅅ만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의모[疑, 疑]와 유모[zero, 또는 fi-, 喻]가 많이 혼용되는 것이다. 이제 ㅅ자를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나 어금니(연구개음) 글자 만드는 기초로 삼지 않은 것은 대개 목구멍은 물[水]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木]에 속하는 까닭에, ㅅ은 비록 어금닛소리(연구개음)에 속해 있으면서도 (목구멍소리인) ㅇ과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움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아직 물 기운이 많음과 같기 때문이다. ㄱ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요, ㅋ은 나무가 번성하게 자람이요, ㆁ은 나무가 나이 들어 썩썩하게 된 것이므로, 여기까지 모두 어금니(즉 오행의 목[木], 연구개음의 조음상태)에서 본뜬 것이다.

전청 글자를 나란히 쓰면 전탁 글자가 되는 것은 전청 소리가 엉기(성문폐쇄, 또는 후두긴장)면, 곧 전탁 소리(성문폐쇄음)가 되기 때문이다. 오직 목구멍소리(성문음)의 차청인 ㅎ이 전탁 소리가 되는 것은 대개 ㅈ/ㅉ/은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h/은 ㅈ에 비하여 소리가 얇기 때문에 엉기어 전탁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ㅇ글자를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양순마찰음) 글자가 되는 것은 순경음은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바로 열어서 목구멍소리(숨소리)가 많게 조음한다.

중성(글자)은 무릇 열한 자다. •(소리)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子)시에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 맨 먼저 생겨났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소리)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丑)시에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 두 번째로 생겨났다.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 (소리)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寅)시에 생겨남과 마찬가지로 | 자가 세 번째로 생겨났다.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子·丑·寅을 시간의 순서로 안 보고 우주 만물 생성의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함).

이 아래 여덟 소리(모음)는 하나가 합(闔, 원순모음)이면 하나가 벽(闕, 비원순모음)이다. ㅏ는 •와 한 종류인데 입을 오픈리니 그 모양인즉 •와 —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을 취한 것(이치)이다. ㅑ는 •와 한 종류인데 입을 벌리니 그 모양인즉 | 와 •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천지의 활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뜻(이치)을 취한 것이다. ㅓ는 —와 한 종류인데 입을 오픈리니 그 모양인즉 —와 •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귀는 뜻(이치)을 취한 것이다. ㅕ는 —와 한 종류인데 입을 벌리니 그 모양인즉 •와 | 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천지의 활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취한 것이다.

ㅗ는 ㅏ와 (자형상 또는 음의 종류상) 같으나 (음가는) | 에서 시작된다. ㅛ는 ㅑ와 (자형상 또는 음의 종류상) 같으나 (음가는) | 에서 시작된다. ㅜ는 ㅓ와 (자형상 또는 음의 종류상) 같으나 (음가는) | 에서 시작된다. ㅠ는 ㅕ와 (자형상 또는 음의 종류상) 같으나 (음가는) | 에서 시작된다.



☳ ☵ ☶ ☷ 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 첫 번째로 생겨난 것이 되고, ☳ ☵ ☶ ☷ 는 1에서 시작되어서 사람(즉 1)을 겸하였으므로 두 번째로 생겨난 것이 된다. ☳ ☵ ☶ ☷ 에서 그 둥근 것(즉 ·)을 하나로 한 것은, 첫 번째에 생겨났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 ☵ ☶ ☷ 에서 그 둥근 것(즉 ·)을 둘로 한 것은, 두 번째로 생겨났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 ☵ ☶ ☷ 의 둥그라미(즉 ·)가 (一의) 위와 (1의) 밖으로 놓인 것은, 그것이 하늘(즉 ·)에서 생겨나서 양이 되기 때문이다. ☳ ☵ ☶ ☷ 의 둥그라미(즉 ·)가 (一의) 아래와 (1의) 안쪽에 놓인 것은, 그것이 땅(즉 一)에서 생겨나서 음이 되기 때문이다. ·가 여덟 소리를 켜는 것은 (·자가 여덟 글자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양(陽)이 음(陰)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흐름(미침)과 같다. ☳ ☵ ☶ ☷ 가 모두 사람(人, 곧 1)을 겸함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능히 양의(兩儀, 곧 음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天) · 땅(地) · 사람(人)에서 본을 떠 (제자하였으므로)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삼재(三才)의 이치(道)가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됨과 동시에 하늘이 또 삼재의 시초가 되는 것과 같이, · 一 1 석 자가 여덟 소리(글자)의 우두머리가 되되, 또한 ·자가 석 자의 으뜸이 됨과 같다.

☳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곧 ·와 결합되어 글자가 이루어지니) 천수(天數)로는 1이고 물을 낳는 자리다. ☵가 다음으로 생겨났는데 천수로는 3이고 나무를 낳는 자리다. ☶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지수(地數)로는 2이고 불을 낳는 자리다. ☷가 다음으로 생겨났는데, 지수로는 4이고 쇠(金)를 낳는 자리다. ☳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생겨났는데, 천수로는 7이고 불(火)을 이룩하는 수(수를 자리로 보기도 함)다. ☵가 다음으로 생겨났는데, 천수로는 9이고 쇠를 이룩하는 수다. ☶가 두 번째로 땅에서 생겨났는데, 지수로는 6이고 물을 이룩하는 수다. ☷가 다음으로 생겨났는데 지수로는 8이고 나무를 이룩하는 수다.

물(☵)과 불(☲)은 아직 기(氣)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과 양이 서로 사귀



어 어울리는 시초이기 때문에 단혀진다(여기서 합(闔)은 원순모음이라는 뜻임). 나  
무(나 : ㅁ)와 쇠(쇠 : ㅍ)는 음과 양이 바탕을 고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열린다(여기  
서 벽(闕)은 비원순모음이라는 뜻임). •는 천수로는 5이고 흙(土)을 낳는 자리다.  
ㅡ는 지수로는 10이고 흙을 이룩하는 수다.

(사람에게 해당하는) | 만이 자리나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이란 무극(無極)  
의 참(眞)과 이오(二五, 음양과 오행)의 정(靜)이 미묘하게 어울리어 엉기어서 진  
실로 정위(定位, 방향을 정하고)와 성수(成數, 수를 이루는 문제)로는 논할 수가 없  
기 때문이다. 이런즉 중성 가운데에도 또한 음양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성을 중성에 대비하여 말한다면, 음양은 하늘의 이치(道)이고 강유(剛柔)는  
땅의 이치다. 중성은 (그 성격으로 분류해 보면) 하나가 심(深)이면 하나는 천(淺)  
이요, 하나가 합(闔)이면 하나가 벽(闕)이니, 이는 음과 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  
이 갖추어진 것이니, 하늘의 작용이다. 초성은 (그 성질로 분류해 보면) 어떤 것은  
허(虛)하고 어떤 것은 실(實)하며 어떤 것은 날리고 어떤 것은 걸리며, 어떤 것은  
무겁거나 가벼우니, 이는 곧 강(剛)과 유(柔)가 드러나서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  
진 것이니, 땅의 공(空)이다. 중성이 (그 성질에 따라) 심·천과 합·벽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의 청·탁과 뒤에서 화합하여(곧 중성을 중심으로 서로 결합하  
여) 음절의 첫소리가 되기도 하고 끝소리(종성)가 되기도 하니, 또한 만물이 땅  
[地]에서 처음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감을 나타낸 것이다.

초성·중성·종성 글자가 어울려 이루어진 글자(음절)로 말할 것 같으면 또한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엇바뀌어 변하는 뜻이 있으니, 동  
이란 하늘(天, 초성)이요, 정이란 땅(地, 중성)이며, 동과 정을 겸한 것은 사람(人,  
종성)이다. 대개 오행이 하늘에 있어서는 신의 운행이요, 땅에 있어서는 바탕의

이름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인(仁)·예(禮)·신(信)·의(義)·지(智)가 신(神)의 운행이요, 간장[肝]·심장[心]·비장[脾]·폐장[肺]·신장[腎]이 바탕[質]을 이름이다. 초성에는 발동의 뜻이 있으니 하늘[天]이 하는 일이요, 종성에는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땅[地]이 하는 일이다. 중성은 초성이 생겨남을 받아, 중성의 이름을 이어주니 사람(=중성)이 하는 일이다.

대개 자운(한자음 또는 한국어의 음절)의 중심은 중성에 있다. 초성과 종성과 어울려서 음(음절)을 이루니, 이것은 또한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이룩해도 그 재성(財成, 조정)과 보상(輔相, 보충)은 반드시 사람[人]인 주인이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성에서 초성(자)을 다시 쓰는 것은, 동(動)해서 양(陽, 초성)이 된 것도 건(乾, 초성 글자)이요, 정(靜)해서 음(陰, 종성)이 된 것도 건(乾, 초성 글자)이니, 건이 실지로는 음과 양으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중심 구실을 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원(一元)의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돌고 돌아 끝이 없는 까닭에 (元亨利貞의 이치에 따라), 정(貞)에서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에서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뜻이다.

아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갖추어지니, 참 신기한 일이구나! 이것은 거의 하늘이 성인(聖人, 즉 성왕인 세종)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숨씨를 성인에게 빌려주신 것이로구나!

결(訣, 요약)에 가로되,  
천지(우주)의 화성(化成)은 본래 한 기운  
음양과 오행이 서로 처음이며 또 끝

둘(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이 (음양오행의 조화로) 형(形)과 성(聲)이 있으나  
근본에는 둘이 없으니 이(理)와 수(數)가 통하네.

정음(正音) 글자 만듬에 모양 본뜨기를 존중하되  
소리가 거세면 획 하나를 더하였네.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에서 소리가 나오니  
이것이 초성이 되고 글자는 열일곱.

어금닛소리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취하되  
다만 ㅇ(業)은 ㅁ(欲)과 비슷하여 뜻(제자 원리)을 취함이 다르네.

혓소리는 곧 윗잇몸에 혀가 붙은 모양  
입술소리는 곧 입 모습을 본뜬 것.

잇소리 목구멍소리는 바로 이(齒)와 목구멍 모습을 본뜬 것이니  
이 다섯 뜻(제자 원리)을 알게 되면 소리는 저절로 환하리라.

그리고 또 반혀·반잇소리 있으니  
모습 본뜨긴 같아도 체(바탕)가 다르네.

ㄴ(那)·ㅁ(彌)·ㅅ(戌)·ㅇ(欲)은 소리가 거세지 않아  
차례론 뒤건만 상형엔 먼저네.

(초성을) 사성과 충기(沖氣)에 배합해 보면  
오행과 오음에 안 어울림 없네.

목구멍소리는 (오행으론) 물[水]이 되고 (계절로는) 겨울이요  
(음악으로는) 우음(羽音)이며

어금닛소리는 봄과 나무[木] 그 음은 각음(角音)이네.  
치음(徵音)에 여름[夏], 불[火]인 것이 혓소리이며

잇소리는 상음(商音)에 가을[秋]이요, 또한 금[金]이네.  
입술소리 자리[位]나 수(數)에 정함이 없어도

흙[土]으로서 늦여름(季夏)이라 궁음(宮音)이 되네.

성음(聲音)엔 또한 제각기 청탁(淸濁)이 있으니  
 첫소리가 피어남에서 꼼꼼히 살피라.  
 전청(全淸) 소리는 ㄱ(君) · ㄷ(斗)과 ㅈ(驚)이요,  
 ㅅ(卽) · ㅆ(戌) · ㅊ(攄) 또한 전청의 소리.  
 만일 ㅋ(快) · ㅌ(吞) · ㅍ(漂) · ㅊ(侵) · ㅎ(虛)로 이를 것 같으면  
 오음에서 각각 하나가 차청이 된 것이네.  
 전탁(全濁)의 소리는 ㄱ(虬)와 ㄷ(覃) · ㅈ(步)  
 그리고 또 ㅅ(慈) · ㅆ(邪) 또한 ㅎ(洪)이 있네.  
 전청(全淸)을 나란히 쓰면 전탁(全濁)이 되건만  
 다만 ㅎ(洪)은 ㅎ(虛)에서 나와  
 이것(전청을 나란히 쓴 것)이 다르네(즉 ㅎ은 차청인 ㅎ을 나란히 쓴 것).  
 ㅎ(業) · ㄴ(那) · ㅁ(彌) · ㅇ(欲)과 ㄹ(閭) · ㄷ(穰)은  
 그 소리가 불청(不淸)이고 또한 불탁(不濁)이네.  
 ㅇ(欲)자를 이어 쓰면(連書) 입술 가벼운 소리 글자(脣輕音字)가 되니  
 목구멍소리(숨소리)가 많고 입술은 잠깐 합하네.  
 중성(中聲) 열한 자도 또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니  
 (중성을 만든) 깊은 뜻은 쉽사리 알아볼 수 없으리.  
 · (吞) 글자는 하늘에 비긴 것이니 그 소리 가장 깊어  
 둥근(글자) 모양이라 탄환(구슬) 같네.  
 一(卽) 소리는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아  
 그(글자)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네.  
 丨(侵) 글자는 사람의 선 모양을 본뜬 것으로 그 소리 얕으니  
 삼재(三才)의 도는 이렇듯 갖추게 되었네.  
 ㄷ(洪)자는 · (하늘) 글자에서 나와 다시 합(闔, 원순모음)이 되니  
 하늘의 둥글(天圓)과 땅의 평평함(地平)을 아울러 취하고

亠(亠) 글자 역시 ㆍ(하늘)에서 나오나 이미 벽(闕, 장순모음)이 되며  
 사물에서 드러나 곧 사람(즉 亠 모음)으로 이루어지네.  
 (亠)는 처음 생겨난다는 뜻을 나타내어 그 원(圓)을 하나로 하고  
 하늘(ㆍ)에서 나와 양이 되어 (ㆍ가 亠와 亠의) 위와 밖에 있네.  
 ㄷ(欲)와 亠(穰)는 사람(人=亠)을 겸해 재출(再出)이 되니  
 두 개의 둥근 형상으로 그 뜻을 보이었네.  
 ㄷ(君)와 亠(業)와 ㄷ(戌)와 亠(驚)가 땅(地=一모음)에서 나옴도  
 예로 미루어 저절로 알게 되니 또 무얼 말하랴.  
 ㆍ(呑)의 글자가 여덟 모음(八聲)에 다 들어간 것은  
 오직 하늘(天, 즉 ㆍ)의 용(用)이 두루 유통되기 때문이네.  
 사성(四聲, ㄷ 亠 ㄷ 亠)이 사람(人=亠 모음)을 겸함도 또한 까닭이 있으니  
 사람(人)이 천지에 참찬(參贊)하여 가장 신령스럽기 때문이네.  
 또 삼성(초·중·종 三聲)에 나아가 깊은 이치를 살피면  
 스스로 강유(剛柔)와 음양이 있으니  
 중성은 곧 하늘(天)의 용(用)이라 음양으로 나뉘고  
 초성은 곧 땅(地)의 공(功)이라 강유가 드러나네.  
 중성이 부르고 초성이 화답함은  
 하늘(天)이 땅(地)보다 앞서서 이치가 스스로 그러하네.  
 화답한 그것(즉 초성)이 처음 되고 또 나중 되니  
 만물이 생겨나 모두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네.  
 음은 변해 양이 되고 양은 변해 음이 되어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여 서로 뿌리가 되네.  
 초성은 또다시 발생의 뜻이 있어서  
 양의 동(動)이 되므로 하늘을 주관하고  
 중성은 땅(地)에 비기어 음의 정(靜)이니

百오  
빅흙  
姓흙  
성은  
기소리  
르니  
치니  
시訓  
논훈  
正民  
정민  
正  
훈  
소리  
正  
音  
음

자음(字音)은 여기서 그치어 정해지는 것이네.

운을 이루는 요점은 중성에 있으니

사람(人)이 능히 천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

양의 용(用)됨이 음(중성)에도 통하여

(음에) 이르러 편 즉 돌이켜 (양으로) 되돌아가리니

초성·종성이 둘(음과 양)로 나뉜다 해도

중성에 초성을 쓰는 뜻을 알리라.

정음 글자는 다만 스물여덟이지만

깊은 이치와 복잡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윽한 이치를 밝혀낼 수 있네.

뜻은 멀되 말이 가까워 백성을 이끌기 쉬우니

하늘이 주심이라 어찌 일찍이 (사람의) 슬기와 기교로써 된 것이리요.

#### 초성해(初聲解)

정음의 초성은 곧 운서(중국어 발음사전)의 자모(字母)다. 말소리(聲音)가 이로부터 생겨나므로 이르기를 모(母)라 한 것이다. 연구개음인 군(君)자의 초성은 곧 ㄱ인데 ㄱ이 ㄷ과 어울려 ‘군’이 되고, ㄱ(快)자의 초성은 곧 ㅋ이니 ㅋ이 ㅌ와 어울려 ‘쾌’가 된 것이고, 규(虬)자의 초성은 ㄱ인데 ㄱ이 ㅊ와 합하여 ‘규’가 되고, 업(業)자의 초성은 ㅍ인데 ㅍ이 ㅍ과 어울려 ‘업’이 되는 것과 같다. 혀소리의 ㄷ(斗)·ㅌ(吞)·ㄸ(覃)·ㄴ(那), 입술소리의 ㅂ(曄)·ㅍ(漂)·ㅃ(步)·ㅍ(彌), 잇소리의 ㅈ(卽)·ㅊ(侵)·ㅆ(慈)·ㅅ(戌)·ㅆ(邪), 목구멍소리의 ㅎ(扞)·ㅎ(洪)·ㅇ(欲), 반혓소리, 반잇소리의 ㄹ(閭)·ㄹ(穰)도 모두 이와 같다.

결(訣)에 이르기를,

ㄱ(君)·ㅋ(快)·ㄱ(虬)·ㅍ(業) 그 소리는 어금닛소리이고,

헛소리는 ㄷ(斗) · ㅌ(吞)에 ㅌ(覃) · ㄴ(那)이고,  
 ㅂ(鶩) · ㅍ(漂) · ㅅ(步) · ㅁ(彌)은 곧 입술소리며,  
 잇소리엔 ㅈ(卽) · ㅊ(慈) · ㅊ(侵) · ㅅ(戌) · ㅆ(邪)이 있고  
 ㅎ(挹) · ㅎ(虛) · ㅎ(洪) · ㅇ(欲)은 곧 목구멍소리이며  
 ㄹ(閭)은 반헛소리, ㄹ(穰)은 반잇소리,  
 스물석 자가 자모(字母)가 되어  
 온갖 소리가 나고 남이 다 여기서 시작되네.

### 중성해(中聲解)

중성은 자운(字韻)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음절)을 이룬다. 예를 들면 툇(吞)자의 중성은 ·인테 ·가 ㅌ과 ㄴ 사이에 있어서 ‘툇’이 되고, 즉(卽)자의 중성은 곧 —인테 —는 ㅈ과 ㄱ 사이에 있어서 ‘즉’이 되고, 침(侵)자의 중성은 곧 |인테 |가 ㅊ과 ㅁ 사이에 있어서 ‘침’이 되는 것과 같다. ㅎ(洪) · ㅌ(覃) · ㄱ(君) · ㅅ(業) · ㅅ(欲) · ㅅ(穰) · ㅅ(戌) · ㅅ(猷)도 모두 이와 같다. 두 글자를 합용(合用)함에는 ㅌ와 ㅌ가 다 같이 ·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ㅌ가 되고, ㅌ와 ㅌ가 또한 |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ㅌ가 되고, ㅌ와 ㅌ가 다 같이 —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ㅌ가 되고, ㅌ와 ㅌ가 또한 |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ㅌ가 되는 것이니 (같은 것으로부터) 함께 나와서 같은 유(類)가 되므로 서로 어울려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 글자로 된 중성으로서 |와 서로 어울린 것은 열이니 이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가 그것이고, 두 글자로 된 중성으로서 |와 서로 어울린 것은 넷이니 ㅌ ㅌ ㅌ ㅌ가 그것이다. |가 심천합벽(深淺闔闔) 등 모든 모음소리(모음 글자)에 어울려서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알아서 입을 열기에 편하기 때문이다(모음이 모든 모음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서). 또한 가히 사람(人)이



百오  
빅음  
姓음  
성은  
기소리  
르니  
치니  
시訓  
논훈  
正民  
정민  
훈正  
소리正  
라音  
음

사람의 지식을 개발하여 사업을 달성시키는 일에 참여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訣)에 이르되,

모(母)가 되는 글자의 음(音)마다 제각기 중성이 있으니

모름지기 거기서 합벽(闔闢)을 찾으라.

ㄴ(洪)와 ㄷ(覃)는 ㄷ(吞)로부터 나왔으니 아울러 쓸 수 있고

ㅡ(卽)에서 나온 ㄴ(君) ㄷ(業) 또한 가히 합하리.

ㄷ(欲)와 ㄷ(穰)나 ㄷ(戌)와 ㄷ(驚)나

제각기 좇는 바를 미루어 뜻(이치)을 알 수 있네.

ㅣ(侵)자의 용(用)됨이 가장 많아서

열넷의 소리(모음)에 두루 따르네.

종성해(終聲解)

종성은 초성과 중성을 이어받아 자운(字韻, 음절)을 이룬다. 예를 들면 즉(卽)자의 종성은 곧 ㄱ인데 ㄱ은 ㅈ의 끝에 있어서 ‘즉’이 되고, 홍(洪)자의 종성은 곧 ㅅ인데 ㅅ은 ㅎ의 끝에 있어서 ‘홍’이 되는 것과 같다. 혀소리[舌], 입술소리[脣], 잇소리[齒], 목구멍소리[喉]가 종성이 되는 경우도 같다.

소리에는 느리고 빠름[緩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그 종성이 입성(入聲)의 빠름[促急]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不淸不濁)의 글자(음)는 그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종성으로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고,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의 글자는 그 소리가 거세므로 종성으로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 그러므로 ㅅㄴㅁㅇ ㄹㅅ의 여섯 자(음)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

성의 종성이 되나 ㄱ ㅎ ㄷ ㄴ ㅁ ㅂ ㅅ ㅈ 여덟 자만으로 쓰기에 족하다. 예를 들면 이화(梨花)가 **빛**꽃이 되고 호피(狐皮)가 **엿·의**꽃이 되건만 ㅅ자로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ㅅ자를 쓰는 것과 같다. 그리고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국어의) 종성이 음을 이룰 수 있다.

ㄷ은 **뎡**(鷹)의 종성 ㄷ이 되고, ㄴ은 **군**(君)의 종성 ㄴ이 되고, ㅁ은 **몹**(業)의 종성 ㅁ이 되며, ㅁ은 **땀**(覃)의 종성 ㅁ이 되고, ㅅ은 한국어인 **·옷**(衣)의 종성 ㅅ이 되며, ㄹ은 한국어인 **·실**(絲)의 종성 ㄹ이 된다.

오음(五音)의 느리고 빠름(緩急)이 (같은 조음 위치에 있어서) 또한 각기 스스로 짝(對)이 된다. 연구개음의 ㅎ은 ㄱ과 짝이 되어 ㅎ음을 빨리 발음하면 ㄱ음으로 변하여 급하고, ㄱ음을 느리게 내면 ㅎ음으로 변하여 느리며, 설단음의 ㄴ음과 ㄷ음, 양순음의 ㅁ음과 ㅂ음, 잇소리의 ㅅ음과 ㅈ음, 성문음의 ㅇ음과 ㅎ음도 그 완급(緩急)이 서로 짝이 된다. 또 유음(流音)인 ㄹ음은 마땅히 한국어의 종성이나 쓸 것이며 한자(漢字)의 종성)에는 쓸 수 없다. 입성(入聲)의 ㅍ자와 같은 것도 종성에 마땅히 ㄷ음을 써야(ㄷ음으로 발음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습관으로 ㄹ음으로 읽으니 대개 ㄷ음이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만일 ㄹ음으로 ㅍ자의 종성을 삼는다면 그 소리가 느려져서(舒緩) 입성이 되지 못한다.

결(訣)에 이르기를,

불청불탁음(不清不濁音)을 종성에 쓴 즉

평성, 상성, 거성이 되고 입성이 되지 않네.

전청, 차청 그리고 전탁음은

모두 입성이 되어 소리가 촉급하네.

초성이 종성됨은 이치(理致)가 본래 그러한데

다만 여덟 자만 가지고도 쓰임에 막힐 것 없네.

百오  
빅흙  
姓흙  
성은  
기소리  
르니  
치니  
시訓  
논훈  
正民  
정민  
正  
훈  
소리  
라  
正  
흙  
흙  
은

오직 ㅅ(欲)자가 있어야 마땅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그대로 음(음절)을 이루어 통할 수 있네.

만일 즉(卽)자를 쓰려면 ㄱ(君)을 중성으로 하고

홍(洪)·별(鶯)은 ㅅ(業)과 ㄷ(斗)을 중성으로 하니

군(君)·업(業)·땀(覃) 중성은 또한 어떨까.

ㄴ(那)·ㅂ(鶯)·ㅁ(彌)을 가지고 차례로 미루어 보라.

여섯 소리(六聲, ㄱㅇㄷㄴㅂㅁ)는 한자와 우리말에 함께 쓰이되

ㅅ(戌)과 ㄹ(閏)은 우리말의 옷(衣)과 실(絲) 중성으로만 쓰이네.

오음(아·설·순·치·후음)은 각각 느리고 촉급한 짝을 저절로 이루니

ㄱ(君) 소리는 ㅅ(業) 소리를 빠르게 낸 것이고,

ㄷ(斗)·ㅂ(鶯) 소리가 느려지면 ㄴ(那)과 ㅁ(彌)이 되며,

ㅅ(穰)와 ㅅ(欲)은 그것 또한 ㅅ(戌)·ㅅ(搥)의 짝이네.

ㄹ(閏)은 우리말 중성 표기에는 마땅하나 한자음 표기에는 마땅치 않으니

ㄷ(斗) 소리가 가벼워져서 ㄹ(閏) 소리가 된 것은 곧 일반적인 습관이네.

### 합자해(合字解)

초·중·종 세 소리가 어울려서 글자(음절)를 이룬다. 초성(글자)은 중성(글자) 위에 쓰기도 하고 중성(글자)의 왼쪽에 쓰기도 하니, 예컨대 군(君)자의 ㄱ은 ㄴ 위에 있고, 업(業)자의 ㅅ은 ㅂ의 왼쪽에 있음과 같다.

중성(글자) 가운데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초성(글자) 아래에 쓰니 ㄱ ㄴ ㄷ ㄹ ㅂ ㅅ ㅁ ㅈ ㅊ ㅋ ㆁ 가 이것ियो, 세로로 된 것은 초성(글자)의 오른쪽에 쓰니 ㅅ ㅈ ㅊ ㅋ ㆁ 가 이것이다. 예를 들면 툇(呑)자의 ㅅ는 ㅈ의 아래에 쓰고 즉(卽)자의 ㄴ는 ㅈ의 아래에 있으며, 침(侵)자의 ㅅ는 ㅈ의 오른쪽에 쓴다.

중성(글자)은 초·중성(글자) 아래에 쓰니 예를 들면 군(君)자의 ㄴ은 ㄱ의 아래에 있고, 업(業)자의 ㅂ은 ㅅ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초성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合用 兼書]은, 가령 한국어의 ㅅㅅ로 지(地, 땅)를 나타내고 ㅅㅅ으로 척(隻, 하나)을 나타내고 ㅅㅅ으로 극(隙)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각자병서는 가령 한국어의 ㅅ혀로 설(舌)을 나타내는데 ㅅ혀는 인(引)을 나타내며, ㅅ여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ㅅ여는 남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뜻이 되며, ㅅ다는 물건을 덮고 ㅅ다는 '무엇을 쏘다' 라는 뜻이 된다.

중성(글자)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은 가령 한국어의 ㅅㅅ으로 금주(琴柱)를 나타내고, ㅅㅅ으로 햇불(炬)을 나타냄과 같다.

중성(글자)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은, 가령 한국어의 ㅅㅅ이 토(土)를 나타내고, ㅅㅅ이 조(鈞)를 나타내며, ㅅㅅ으로 유시(酉時)를 나타냄과 같다. 이들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초·중·중성이 다 같다.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쓸 경우에는 위에 오는 한자음에 따라서 한글의 중성(글자)이나 중성(글자)을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가령 '공자(孔子) | 노(魯) ㅅㅅㅅ' 이라고 쓰는 것과 같다.

한국어의 평·상·거·입의 예를 들면, ㅅㅅ은 '궁(弓)' 이고 평성이며, ㅅㅅ은 '석(石)' 이고 상성이며, ㅅㅅ은 '도(刀)' 이고 거성이요, ㅅㅅ은 '붓(筆)' 인데 그 소리는 입성이 되는 것과 같다. 무릇 글자(음절)의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이고, 두 점을 찍은 것은 상성이며,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다. 한자음(漢字音)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나, 한국어의 입성은 일정치 않아서, 혹은 평성과 비슷하여 ㅅㅅ(柱=기둥), ㅅㅅ(簪=옻구리)과 같이 되고, 혹은 상성과 비슷하여 ㅅㅅ(穀=곡식), ㅅㅅ(繪=비단)과 같이 되며, 혹은 거성과 비슷하여 ㅅㅅ(釘=못), ㅅㅅ(口)과 같이 되는데, 점을 찍는 것은 평성·상성·거성의 경우와 같다.

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러워서[安而和] 봄에 해당되어 만물이 천천히 피어나고  
[舒泰], 상성은 부드럽고 높으니[和而舉] 여름에 해당되어 만물이 점점 무성해지  
고[漸盛], 거성은 높고 씩씩하니[舉而壯] 가을에 해당되어 만물이 무르익고, 입  
성은 빠르고 막히니[促而塞] 겨울에 해당되어 만물이 숨고 감추어짐과 같다.

초성의 ㅁ은 ㅀ과 서로 비슷해서 한국어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

유음에도 경·중 두 가지 음이 있으나, 중국 운서의 자모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하였고, 또한 국어(글자)에서도 경·중을 나누지 아니 하나 모두 소  
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만약에 갖추어서 쓰고 싶으면 순경음(글자)의 예를  
좃아 ㅀ을 ㅁ의 아래에 이어 써서 반설경음(탄설음 글자 ㄹ)을 만들고 혀를 잠깐  
윗잇몸에 닿도록 해서 발음한다.

| 음이 앞에 와서 ·음이나 —음과 결합된 음(중모음)은 국어에서 쓰이지 않  
으나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말에는 간혹 있으니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하여  
나타내려 할 때에는 ㅁㅁ 따위와 같이 한다. 그러나 세로로 된 글자를 먼저 국  
고 가로로 된 글자를 나중에 쓰는 것은 다른 글자(이중모음)의 경우와 같지 않다.

결(訣)에 이르되,

초성(글자)은 중성의 왼쪽과 위에 쓰는데

ㅁ(搥)과 ㅀ(欲)은 우리말에서 서로 같이 쓰이네.

중성(글자) 열 하나는 초성에 붙이는데

등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아래에 쓰고 세로로 된 것만 오른쪽에 쓰네.

중성을 쓰자면 어디에 쓰나?

초성, 중성(글자)의 아래에 잇따라 붙여 쓰네.

초성, 중성(글자)을 합용하려면 각각 나란히 쓰고

중성(글자)도 합용하되 다 왼쪽부터 쓰네.

우리말에선 사성(四聲)을 어떻게 가리나?

평성은 활(弓)이요 상성은 돌(石)이네.

칼(刀)은 거성이 되고 붓(筆)은 입성이 되니

이 네 가지를 보아서 다른 것도 알 수 있네.

음을 바탕 삼아 왼쪽의 점(點)으로 사성을 나누어

하나면 거성, 둘은 상성, 없으면 평성이네.

우리말 입성은 정함이 없으나 평 · 상 · 거성처럼 점 찍고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네.

방언과 이어(俚語)가 모두 다르매

소리 있고 글자는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하루아침에

(임금께서) 만드셔 하늘 솜씨에 비기니

우리나라 오랜 역사에 어둠을 깨우치셨네.

#### 용자례(用字例)

초성 ㄱ은 **감**(柑), **굴**(갈대, 蘆)의 초성과 같으며, ㅋ은 **우케**(겉벼, 未春稻), **콩**(大豆)의 초성과 같으며, ㅎ은 **러울**(수달, 獺), **서예**(성예, 流漸)의 초성과 같으며, ㄷ은 **뒤**(띠, 茅), **담**(牆)의 초성과 같으며, ㅌ은 **고티**(고치, 繭), **두텁**(두꺼비, 蟾蜍)의 초성과 같으며, ㄴ은 **노로**(노루, 獐), **납**(원숭이, 猿)의 초성과 같으며, ㅂ은 **불**(팔, 臂), **벌**(벌, 蜂)의 초성과 같으며, ㅍ은 **파**(파, 葱), **꿀**(파리, 蠅)이 되는 것과 같다.

ㅁ은 **뫼**(산, 山), **마**(마, 薯蕷)의 초성과 같으며, ㅍ은 **사빙**(새우, 蝦), **드뵈**(뒤옹박, 瓠)의 초성과 같으며, ㅊ은 **자**(자, 尺), **조히**(종이, 紙)의 초성과 같으며, ㅌ은 **체**(체, 籠), **채**(채찍, 鞭)의 초성과 같으며, ㅎ은 **손**(手), **섬**(섬, 島)의 초성과 같으며, ㅎ은 **부형**(부엉이, 鵂鶒), **힘**(힘줄, 筋)의 초성과 같으며, ㅇ은

비 육(병아리, 계추, 鷄雛), 부얌(뱀, 蛇)의 초성과 같으며, 큰 무뤼(우박, 雹),  
어름(얼음, 氷)의 초성과 같으며, 스은 아수(아우, 弟), 너시(너새, 鵝)의 초성  
과 같다.

중성 ㆍ는 독(이, 頤), 꾹(팥, 小豆), 두리(다리, 橋), 구래(가래나무, 楸)의 중성  
과 같으며, 一은 물(水), 발측(팔꿈치, 跟), 그력(기러기, 鴈), 드레(두레박, 汲器)  
의 중성과 같으며, 丨는 깃(깃, 巢), 밀(납, 蠟), 피(피, 稷), 키(키, 箕)의 중성과 같  
으며, ㄴ는 논(논, 水田), 톱(톱, 鉤), 호미(호미, 鉏), 벼로(벼루, 硯)의 중성과 같  
으며, ㅈ는 밥(밥, 飯), 날(낫, 鎌), 이·하(잉아, 綜), 사슴(사슴, 鹿)의 중성과 같으  
며, ㅊ는 솟(솟, 炭), 울(울타리, 籬), 누에(누에, 蠶), 구리(구리, 銅)의 중성과 같  
으며, ㄷ는 브섬(부엌, 籠), 널(널판, 板), 서리(서리, 霜), 버들(버들, 柳)의 중  
성과 같으며, ㅌ는 종(종, 奴), 고욤(고욤, 栲), 소(소, 牛), 삼료(삼주, 蒼朮菜)의  
중성과 같으며, ㄴ는 남상(남생이, 龜), 약(거북의 일종, 龜鼈), 다야(손대야, 匣),  
자감(메밀깍질, 蕎麥皮)의 중성과 같으며, ㅍ는 울미(울무, 薏苡), 죽(飯糰), 슈·롭  
(우산, 雨傘), 주련(여자의 수건, 幌)의 중성과 같으며, ㅍ는 옛(옛, 飴餠), 밀(질, 佛  
寺), 벼(벼, 稻), 제비(제비, 燕)의 중성과 같다.

중성 ㅅ은 닥(닥나무, 楮), 독(독, 甕)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굼병(굼뱅이, 蟻  
蟻), :올창(올창이, 蟬蚪)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갯(갯, 笠), 신(신나무, 楓)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신(신, 屨), :반되(반디, 螢)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섬(섬,  
薪), :굽(굽, 蹄)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범(범, 虎), :샘(샘, 泉)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жат(жат, 海松), :못(못, 池)의 중성과 같으며, ㅅ은 :돌(월, 月), :별(별, 星)의  
중성과 같다.

### 정인지 서문(鄭麟趾序)

천지 자연의 소리(聲)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다(즉 천지 자연의



소리를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게 하고, 삼재(三才, 天·地·人)의 도리를 책에 신게 하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성기(聲氣)도 이에 따라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말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쓰임에 통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요는 각각 그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의케 할 것이요, 억지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다.

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 등 문물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나 방언, 이어(즉 한국어와 사투리)가 중국과 같지 않다. 그래서 (한문으로 씌어 있는) 글의 뜻을 일반 백성은 깨우치기 어려움을 걱정으로 여기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혹은 꺾거리고 혹은 막히어서,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언어를 적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이다.

(이래서) 계해년(1443) 겨울에 우리 세종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어진 글자 모양은 중국의 고전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음악의) 칠조(七調)에 맞고, 주역의 삼재의 뜻과 이기(二氣, 陰陽)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스물여덟 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여 (얼마라도 응용해서 쓸 수 있고)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 글자로써

(한문으로 된) 글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소송사건을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는 울려(음계)가 고르게 되며,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해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로 적을 수가 있다.

드디어 (세종께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매, 이에 신이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령부 주부 강희안,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해와 예를 지어서 이 글자에 대한 전체적인 요점을 서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랐사오나, 그 깊은 연원(근원)이나 자세하고 묘한 이치에 대해서는 신 등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배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을 초월하여, 정음(正音)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의 설을 이어 받으심이 없이 자연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참으로 그 지극한 원리가 있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인위(人爲)의 사사로움, 즉 어떤 개인의 사적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되지 않음이 아니나, 만물을 개발하고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 (즉 세종이 나타나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446년(세종 28) 9월 상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이고 삼가 씀.



- ⑧ 배우기 쉬워서 하루아침, 또는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
- ⑨ 이 글자가 창제되어 한문책의 뜻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죄인(罪人)의 뜻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한자음도 분명해졌고, 음악도 음계가 고르게 되었으며, 바람 소리, 닭 울음 소리도 다 적을 수 있게 되었다.
- ⑩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은 최항 등 8명이다.
- ⑪ 이 글자는 순전히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안에 의하여 창제된 것이다.

강신항 역, 요약(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百 오  
빅 흙  
姓 흙  
성 은  
기 소리  
리  
치니  
시 훈  
논 훈  
正 民  
정 민  
훈 正  
소리 정  
라 흙  
은